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20 채널A 뉴스 특보	00 KBS 뉴스광장	00 튠트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20 골든 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지치)	30 KBC 모닝와이드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00 신문이야기 들춰주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튠트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15 SBS 뉴스
20 채널A 뉴스특보	00 중계방송 인사정보	15 사랑의 가족 45 생생 정보통 플러스(재)	00 주말특별기획 (마미)(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2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재)	00 SBS 12 뉴스 30 닥터365 35 세상발견 유레카
1 뉴스 특급	00 제11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35 한국의 맛
40 직언직설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	05 2014 MBC 1318 사랑의 열매캠프	00 SBS 뉴스 10 건강 클리닉(재)
55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뉴스토크	3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주로영 동물탐정(재)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보글 국 원정대 40 헬로 키즈 아해! 지구탐험대	10 방학특집 음악여행 명곡의 고향
55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선단 55 튠트 생활체조	25 마법 천자문 55 비타민(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00 최강! 탐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세상은 놀다		00 MBC 이브닝 뉴스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20 백일성의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배구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20 모큐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법상의 신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 파노라마 50 생명최전선	00 수목 드라마 (조선 총잡이)	00 수목미니시리즈 (윤영처럼 널 사랑해)	00 드라마 스페셜 (관찰야 사랑이야)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15 별바라기	15 자기야
20 카툰쇼S(재) ①:30 관찰카메라 24시간	30 넷워크 문화특선 이한철의 유쾌 유익 ①:20 생활의 발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다큐멘터리 3일 ①:35 공부하는 인간 호모 아카데미쿠스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아리 ①:10 우리가족 우리문화	35 나이트 라인 ①:05 풋볼 매거진 골!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생활백과>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5:40 장수의 비결(재)	10:10 리얼토크 부부	14:45 곤	19:00 리얼토크 땅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00 지구를 지켜라	19:30 EBS 뉴스
07:00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페루>(재)	15:15 마자와 곰	19:50 특집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07:15 유당당탕 아이쿠(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꼬마거북 프랑클린	20:40 통일 채널 e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5:45 바두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 네이멍구)
07:45 로보카 폴리(재)	13:05 역사채널e	16:00 덩둥영 유치원	21:30 한국기행 <태백 삼척>
08:00 덩둥영 유치원	13:10 초등2년 EBS 여름방학생활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50 특집 자연 다큐멘터리 <알프스의 숨은 보석, 아름베르크의 세계>
08:20 책과 땅(재)	13:3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16:30 책갈피 오정 또보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줄거은 수학 EBSMATH	16:45 How-만들어 볼까요	23:35 장수의 비밀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4:00 시인회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09:05 책갈피 오정 또보(재)	14:10 외규어권 친구들	17:15 꼬마버스 타요	
09:20 미술탐험대	14:20 풀뿌리 패파는 즐거워	17:30 로보카 폴리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7:45 두다다콩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1:40 박봉의 이수리 만나는 경제 <국어 II>
00:50 " <영어독해의 기본 I> <수학 II>	12:10 5분 과탐-지구과학 I <수학 I B형>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II> <수학 II>	12:15 수능 완성 <수학 I B형>
02:30 " <한국사(하)>(재)	13:05 " <미적분과 통계 기본>
03:20 뉴 탐스런 <한국사(하)>(재)	14:00 " <국어 B형>
04:10 " <과학>	14:50 " <영어 ①>
05:00 " <한국사(하)>(재)	15:40 " <영어 ②>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16:30 " <한국사(하)>(재)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I>	17:20 " <사회문화>
07:30 2014 포스 <문학 II>	18:10 " <경제>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19:00 " <윤리와 사상>
09:10 " <수학 II>(재)	19:50 5분 과탐-지구과학 I (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21:00 " <수학 B형>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B형>

EBS플러스2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40 초등2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실원관찰 비법 노트	16:0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4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직업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등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줄거은 수학 EBS MATH	17:00 초등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수학집중 6-1>(재)
09:50 " <영어 I>	18:00 TV 중학 <역사(하)>
10:30 " <도덕 I>	18:40 " <사회 3>
11:10 " <국어 ③④>	19:20 필독 중학 한국사(재)
11:50 " <영어 2>	20:00 중학개념 골쟁내기 <사회>
12:30 등업산공 <사회 1>	20:40 " <세계사>
13:10 " <역사 1>	21:20 " <한문>
13:50 " <역사 2>	22:00 등업 산공 <과학 3-2>
14:30 " <사회 2>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
15:20 초등1년 EBS 여름방학생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1일(음 7월 26일 甲子)

子	36년생 길상이 깨닫지면서도 맑은 기운으로 들어온다. 48년생 활동한다면 획기적인 생산 효과가 있다. 60년생 부담을 안게 되리라. 72년생 손질해야 한다. 84년생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56, 04	午	4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54년생 자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6년생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상은 대동소이하다. 78년생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31, 47
丑	37년생 보지만 말고 직접 접해야 하니라. 49년생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61년생 쓴 맛을 보게 되리라. 73년생 아차 하면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85년생 상대의 감응이 의외로 빠르다. 행운의 숫자 : 72, 78	未	43년생 여러 번에 걸쳐서 단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55년생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 67년생 용이 있게 추진하면 흉사도 비켜간다. 79년생 중차대한 일이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0, 24
寅	38년생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리라. 50년생 가장 진실하게 보였던 것이 제일 허할 것이다. 62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74년생 의문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96, 45	申	44년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회중지병에 불과하다. 56년생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명심하라. 68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이재로움이 있을 것이다. 80년생 방법의 차이에 인해서 피로감이 쌓이리라. 행운의 숫자 : 39, 32
卯	39년생 끝나는 마당에 탈이 날 수도 있으니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1년생 미묘한 인간관계에 따른 고뇌가 보인다. 63년생 근면과 검소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75년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라. 행운의 숫자 : 16, 93	酉	45년생 취지는 좋으나 진행되면서 희석되어질 수도 있다. 57년생 실속을 이끄는 밑거름이 된다. 69년생 복잡하더라도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합당하다. 81년생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일에서 비롯된다. 행운의 숫자 : 55, 01
辰	40년생 오래 갈 인연이 아니니 마음을 비워라. 52년생 옹고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4년생 순탄한 하루지만 할 일은 태산 같이 쌓여있다. 76년생 처리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 행운의 숫자 : 64, 17	戌	46년생 말을 거러서 해야겠다. 58년생 합의하에 행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애리라. 70년생 주된 것을 위주로 이끌어 간다면 어려움을 타개할 수도 있다. 82년생 합목적적인 발상이 요구되는 판시이다. 행운의 숫자 : 66, 40
巳	41년생 속개 될 것이니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53년생 포장만 잘 해도 효과는 배가 된다. 65년생 일관된 진행이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77년생 계획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이다. 행운의 숫자 : 23, 65	亥	47년생 타의에 좌우되지 말고 의지대로 추진하라. 59년생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었다. 71년생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속출한다. 83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문제가 된다. 행운의 숫자 : 84, 7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캐릭터보다 영화 그 자체가 중요”

반전 로맨틱코미디 영화 '내 연애의 기억' 은진 역 강예원



사랑이야기는 영화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라고 단언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전편일률적인 클리셰(상투적 표현)들이 난무한다. 어찌어찌해서 만나고, 위기를 겪다가 다시 만나거나 혹은 헤어지거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내버엔딩스토리. 늘 반복되는 이 사랑이라는 소재가 재미있지만, 가끔 물릴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내 연애의 기억'은 영화적 완성도를 떠나 신선한 구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영화는 로맨틱코미디로 가다가 스펀지 러로 방향을 선회한다. 전반부까지 끌여온 이야기가 맥가핀(속임수)으로 느껴질 정도로 스펀지러로 방향 전환은 빠르며 공격적이다. 그리고 이 급전환을 완충하는 캐릭터가 바로 주인공은 진이다.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는 평범한 이름이지만, 독특한 성격의 여자다. 성격 급한 그녀는 10대 시절부터 연애를 거의 없이 한 '고수'이지만, 또한 그렇게 많이 하고도 늘 상대에게 당하는 '허담'이기도 하다.

지난 2009년 '해운대' 이후 총무로 코미디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맡아온 강예원(34)이 은진을 연기했다.

"시나리오를 보고 무조건 하겠다고 했어요. 새로웠고, 반전도 좋았어요. 읽으면서 너무 좋아 마구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선 영화의 사이즈가 작아 염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배우로서 이 작품을 하면 창피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조선미녀삼총사'에서 함께 출연한 송새벽과는 이번 영화에서 상대역(현석)으로 처음 호흡을 맞췄다. 말투가 빠르고 빠른 리액션에 걸들인 강예원으로서는 느린 말투의 송새벽과 대사의 템포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원래 사석에서도 만나는 친한 분이예요. 송새벽 씨도 연기 패턴이 있는데, 제가 자꾸 귀찮게 했어요. 저랑 함께 대사를 맞추는 연습을 자주 했어요. 그런 연습을 한 건 연극할 때 이후 거의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화는 장르가 다른 두 편의 영화를 잇듯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극적인 밸런스도, 템포의 강약조절도 쉽지 않았을 터. 강예원은 "반전을 생각하지 않고 연기했다"고 말했다.

"순서대로 찍어서 감정 잡기는 수월했어요. 현석의 비밀을 알게 될 때마다 놀라는 저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시나리오를 미리 읽어 내용을 알지만, 그 내용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이번에는 솔직하게 제가 반응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예원은 그동안 코미디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다. '퀵' 이후부터는 거의 코미디를 찍었다. 이번 영화뿐 아니라 차기작인 '발칙한 그녀, 까칠한 그놈'도 로맨틱 코미디다.

"제 안에 유쾌한 부분이 많아요. 원래 '내 연애의 기억' 시나리오에는 유쾌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 안에 유쾌함도 있지만 깊은 슬픔도 있어요.(웃음) 코미디 영화에 자주 출연한다는 주변의 우려가 있긴 해요. 그렇다고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영화 선택의 첫 기준은 이야기예요. 캐릭터는 그다음이죠. 굳이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다른 역할이 찾아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여배우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혹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대다수 여배우가 캐릭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스타가 되는 것, 스타성이 뛰어난 것, 영화배우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영화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미디만 했으니 다른 걸 해야 한다는 압박, 꼭 그런 건 없어요. 변신보다는 이야기, 영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주변에서 그래요 '여배우 일자리가 없다는 데 너는 어디서 그렇게 주워서 잘하느냐고요.'"(하하)

“완전체”로 몽치면 힐링되는 느낌”

그룹 JYJ 3년 만에 2집 '저스트 어스' 발매

"3명이 함께 하는 앨범 활동은 이제는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정말 우리들의 안식처 같은 느낌이에요."(김재중)

홍콩에서 만난 그룹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에서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편안함과 넉넉함이 느껴졌다.

3년 만에 함께 발표한 2집 '저스트 어스'(JUST US) 발매와 함께 아시아 투어에 나선 JYJ는 첫 해외무대로 홍콩을 골랐다. 홍콩 아시아월드드레스포에서 열리는 공연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현지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난 JYJ의 김재중(28)은 "3년 만에 '완전체'로 몽쳤는데 팬들에게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느낌보다는 각자 열심히 일하다가 앨범 활동하면서 '힐링'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설명처럼 셋은 드라마 출연과 영화 촬영, 뮤지컬 공연으로 최근까지 바쁜 나날을 보냈다. "심할 때는 셋이서 석 달간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바빠 활동하느라 JYJ 앨범은 3년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지각' 발매됐다.

개별 일정을 끝내고 숨돌릴 새도 없이 아시아 투어에 나섰지만 이들은 긴장감이 몸이 굳어 있기보다는 발랄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김준수(27)는 "셋이 몽치면 우리가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셋이 함께 있을 때 '힐링'되는 느낌이 거기에 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앨범에도 그런 점이 잘 녹아들었다는 것이 셋의 공통된 평가다. 보통 아이돌 그룹들은 새로운 앨범의 콘셉트에 맞는 곡들을 받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100곡에 가까운 후보곡 중 각자 좋은 곡을 5곡씩 뽑았고 그중 3곡이 일치했다. 이를 중심으로 새 앨범을 꾸렸다. "이런 앨범은 뭔가 형식적인 모양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셋에게 어울리는 음악,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음악을 편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앨범 제목도 그냥 '우리 다시 왔어요, 우리 나왔어요' 이런 의미에서 유천이 '저스트 어스'라고 지어준 것이예요."(김재중)

앨범에 수록된 '백 시트'(BACK SEAT)도 "셋이 30대를 앞둔 만큼 거기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 타이틀곡으로 결정했다"는 김준수의 설명이다.

JYJ가 함께 홍콩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0년 월드와이드 앨범 '더 비기닝'(THE BEGINNING) 발매 기념 쇼케이스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준수는 "이번 투어에는 셋이 함께 나온 만큼 그에 걸맞게 무대 규모가 커졌다"면서 "특이나 댄스, 편안한 음악 등 서로 색깔이 있는데 그런 점을 지난 3년간 각자 해온 행보대로 어느 정도 보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방송 출연 없이도 팬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그만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외압에 의한 부조리함에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김재중) /연합뉴스